

끈끈한 조직력과 굳은 의지...다크호스 그 이상을 꿈꾼다

2013-2014 V리그 훈련캠프를 가다

개막 D-23 | KOVO컵 준우승으로 실력 입증 우리카드

모기업 부재 어려움 딛고 새 이름으로 새 도전
태백서 고강도 체력훈련 통해 독한 시즌 준비
컵대회서 약점 드러낸 서브 정확도·강도 보강
레프트·센터 든든...리베로 공백 메우기 숙제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2013~2014시즌 판도를 놓고 3강4약이란 전문가 의견이 많다.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2강에 대한항공이 도전하고, 나머지 4개 구단이 4위 싸움을 전개한다는 전망. 새 시즌 포스트시즌은 기본적으로 2~3위 팀의 플레이오프(PO) 후 챔피언결정전을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정규리그 3~4위 팀의 격차가 승점 3 이하일 때 준PO를 펼칠 수도 있다. 우리카드의 각오가 만만치 않다. 2012~2013시즌 남자부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낳은 팀은 러시앤캐시 드림식스였다. 모기업 부재로 한국배구연맹(KOVO)의 임시 관리를 받았던 드림식스는 작년 8월 러시앤캐시의 네이밍스폰서 참여로 구단 운영에 숨통을 트고 올 3월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됐다. 우리카드라는 새 이름으로 새 도전에 나선 가운데 충남 아산에 임시 연고를 뒀다. KOVO컵 준우승과 함께 연착륙에 성공했다.

●흑독한 시즌 준비

우리카드의 실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우승에 근접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컵 대회를 통해 입증했다. 결승에서 현대캐피탈에 아쉽게 지긴 했지만 희망은 충분했다.

그렇다고 안주하지는 않는다. 진짜 승부는 V리그다. 실 틈도 없다. 잠깐 휴식기를 보낸 뒤 8월 혹독한 체력훈련에 돌입했다. 열흘에 걸쳐 이어진 강원도 태백에서의 전지훈련은 강도가 높았다. 선수들은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뛰고 또 뛰었다.

타이트한 시즌을 보내는 동안 “체력이 떨어져 경기력이 나빠졌다”는 변명만쯤은 하고 싶지 않다는 강만수 감독의 의지 속에 체력훈련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훈련지로 태백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산을 원 없이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태백 시내의 한 헬스클럽을 대관해 오직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전념했고, 그 기간 중 불을 단 한 차례도 만지지 않았다. 일부 선수는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도저히 견지 못 하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런 힘든 과정을 이겨냈다. 9월 말 선수들을 다시 불러 모았고, 최근까지 체력과 기술 훈련을 병행했다. 11월 초 시즌 개막에 맞춰 컨디션 사이클을 정점에 둔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10월은 기술과 컨디션 조절에 초점을 뒀다. 현재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

●키 플레이어 : 신영석



핵심은 센터 신영석. 블로킹과 속공을 직접 풀어주고, 동료에게도 파이팅을 불어 넣어 준다. 하지만 불안한 대목이 있다. 잦은 대표팀 호출로 성취 않은 몸이다. 신영석은 조직력과 기술훈련이 한창이던 10월 초 강만수 감독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처음 했다. 그러다보니 동료들보다 늦게 몸이 올라오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100% 컨디션을 만들어야 한다.

●IN&OUT

IN

신옴(FA보상), 김태진(군 전역), 정민수, 용동국(이상 신인)

OUT

이강주(FA이적), 박상하, 김현수(이상 군 입대), 윤동현(은퇴)

●예상 포지션



Li 김명길 신옴 ※ L=레프트, C=센터, R=라이트, S=세터, Li=리베로

리고 있다. 강 감독은 “선수들 모두가 팀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뛰다보니 각오도 아주 특별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됐고, 거의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환경이 좋아지면서 선수들도 완전히 ‘우리카드 소속’이란 생각을 갖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강점은 UP, 약점은 DOWN

컵 대회를 통해 우리카드는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체크했다. 끈끈한 조직력과 의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많다. 특히 서브다. 컵 대회에서도 서브미스가 유독 많았다. 불 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카드 선수단은 서브의 정확도와 세기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여기에 실력보다 자세에 대한 중요성도 항상 강조됐다. 기술은 향상시킬 수 있어도 정신과 마음가짐은 쉽게 끌어올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세상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선수가 가장 싫다”는 강 감독은 훈련 시간과 식사 때면 가장 먼저 선수들의 눈빛부터 살핀다. 여러 차례 엽보를 늘어놓은 탓인지 선수들은 늘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 스케줄을 소



새로운 팀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이번 시즌 우리카드선수단의 목표의식은 확실하다. 강만수 감독이 세터 김광국에게 작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카드배구단

화해왔다. 우리카드만의 ‘끈끈한 배구’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상’을 향해

우리카드의 올 시즌 모토는 간결하다. ‘그 이상’이다. 무리하게 목표치를 높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린 ‘그 이상’을 향한다. 굳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자신을 매어둬서는 안 된다. 물론 현실과 당면한 상황에 안주할 생각도 없다. 언제 어디

서나 꾸준히 그 다음 단계를 위해 뛰자고 선수들에게 말하고 있다.”(강만수 감독)

물론 최종 목표는 우승이다. 하루아침에 실력이 완성되는 건 아니겠지만 안 될 것도 없다는 분위기다. 적게는 3팀, 많게는 4팀까지 PO에 진출할 수 있어 당당하게 맞불을 놓을 작정이다.

우리카드의 레프트 진영은 출중하다. 김정환-안준찬-최흥석-신옴 모두 왼쪽 공격수다. 사실 김정환은 라이트로 분류돼 있으나 외국인 선수와 함께 뛸 때는 양 측면을 번갈아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주장 송병일이 중심이 된 세터 라인업(송병

일-김광국), 신영석-박진우가 이룬 센터 진용까지 물샴 틈 없이 조련되고 있다. 외국인 선수는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용병 2명을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그러나 수비 전담 리베로는 아쉽다. 김명길-정민수가 있으나 삼성화재로 이적한 이강주의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 않다. 이에 신옴을 수비수로 돌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아킬레스건만 잘 대비하면 ‘다크호스’ 그 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산 | 남정환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김상우 KBSN과 계약...해설위원 자리 이동

■ 이번 시즌 TV 중계 해설자는 누구?

V리그 개막을 앞두고 방송사들도 준비에 들어갔다. 10년째 V리그를 전담 중계해온 KBS와 이번 시즌 새로 중계를 맡은 SBS가 새얼굴의 해설자를 섭외해 계약을 맺고 시청률 경쟁에 들어간다. 지난해까지 프로배구를 중계했던 MBC sports+는 이번 시즌엔 중계하지 않는다. 독점중계권을 가진 KBS는 SBS와 손을 잡고 남녀부 전 경기를 커버한다.

지난해까지 MBC를 통해 시청자들을 찾았던 김상우 해설위원은 최근 KBSN과 계약을 맺었다. 김세진 해설위원이 러시앤캐시 감독으로 가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던 KBS측은 발 빠르게 접촉해 승낙을 받아냈다. 차분한 목소리로 깊이 있는 경기분석과 깔끔한 해설을 해온 김 위원은 최근 모교 성균관대로부터 감독직도 제의 받았다. 아직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KBSN은 기존의 이세호 박미희 라인업에

김 위원을 영입해 삼각체제로 간다.

KBSN의 해설을 했던 최창식 인하대 감독은 SBS-ESPN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대 이상열 감독도 같은 제의를 받고 이번 시즌 해설자로 나선다. SBS-ESPN의 여자경기는 이도희 현 국가대표팀 코치가 맡는다. 지난 시즌에는 MBC sports+의 해설을 했다. MBC sports+에서 해설을 했던 박희상 위원은 대신고 선배 김호철 감독의 부름을 받고 현대캐피탈 수석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편집 | 박재원 기자 parky@donga.com 트위터 @parkyoon

원조 동대문 야채곱창 맛집...

야채(순대)곱창

후짜장야채곱창

백순대야채곱창

협력 브랜드

다들 좋아하는

300만원으로 비법배우시고 우리동네 유명 맛집 되세요!

다들 좋아하는 동대문 야채곱창

이러쿵 저러쿵 어려운 메뉴구성 ▶ 맛난 특별메뉴 뭐 없을까?

옛날부터 즐겨찾던 진짜야채곱창 ▶ 조리비법을 모르신다구요?

주택가 후미진 골목 조그만 가게 ▶ 어쩌면 잘될까 고민중이시죠?

전문 요리사가 아닌 초보자라서 ▶ 조리가 어려워 힘드시다고요?

우리동네 유명 맛집 되고싶은데 ▶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시죠?

현재 운영중인 시설 그대로 사용 ▶ 맛집이 되는 비결 알려드려요

항상 열려있는 상담 언제든 전화주세요!!!

투자비용의 50% 무이자 대출 가능

특별 혜택

동대문 야채곱창의 대표 브랜드 주식회사 제이앤비즈 대표전화 02-333-6682